

# 방글라데시 투자진출 가이드



**kotra**  
다카무역관

# 목 차

1. 투자진출 개요 .....	1
가. 투자방식 .....	1
나. 투자진출형태 .....	2
다. 회사등록 및 설립절차 .....	3
2. 투자환경 .....	5
가. 투자유치제도 .....	5
나. 우대 및 인센티브 .....	5
다. 외국인투자 허가 절차 .....	8
라.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8
마. 투자 제약 .....	9
3. 조세제도 .....	11
가. 조세제도 개요 .....	11
나. 조세 구분 .....	12
4. 금융환경 .....	14
가. 금융제도 .....	14
나. 주요 금융기관 .....	14
다. 현지금융조달 .....	15
라. 외환제도 .....	15
마. 외환규제 .....	16
첨부. 방글라데시 외국인 투자법 원문 .....	17

## 1. 투자진출 개요

### 가. 투자방식

#### □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 방글라데시에서는 무기·군수, 원자력, 화폐, 항운·철도 등 일부 주요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가 외국인투자에 개방되어 있으며, 외국인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 외국인은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가능하며, 지분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현지기업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기업)과의 합작투자 추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의 신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행정 미비 및 이사회 운영의 난맥, 상이한 언어로 인한 서류 확인이 어려운 등의 문제로 인해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또한 기업 설립 후에는 문제 발생 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의 보호를 받지만, 실제로 분쟁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 □ 외국인투자 진출 선호형태

- 방글라데시 내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회사 형태는 유한책임회사(현지법인)이며 그중에서도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이다. 초기 진출 시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형태로의 진출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적지 않다.
- 합작파트너 간의 의견 충돌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단독 투자가 선호되는 형태다. 단, 합작파트너와의 오랜 거래경험 과 신뢰성이 바탕이 돼 있을 경우 합작투자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무한책임회사(개인기업 등), 보증유한회사 등은 외국인 기업이 잘 활용하지 않는 형태이다.
- 우리기업이 현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해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력은 6~12개월의 복수 비자로 출입하고, 계좌개설을 통한 대금 수취 및 지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 단, 이처럼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 세금의 처리(납세 번호 없음), 파견 인력 지위의 불안정성(취업비자를 받을 근거가 없음) 등 문제가 있어 최근 진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지사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한편 연락사무소의 경우 현지화 기성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열 수 없도록 돼 있어 설립할 실익이 없다.

## 나. 투자진출형태

### □ 투자법규별 구분

#### ○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ies)

-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회사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에는 주식회사와 보증유한회사가 있다. 주식회사는 다시 주식이 일반에 공개되는 공개주식회사와 주식의 공개모집이 금지된 비공개주식회사로 구분된다. 보증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투자자의 보증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주회사 등에서 특수목적의 법인 설립 시 이용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 ☞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ies)

- 무한책임회사는 합명 또는 합자회사로 기업 채무에 대해 대표나 사원이 무한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 (Ownership Company 또는 Proprietorship company)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무한책임회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 주식을 일반대중에게 공모할 수 있으므로 규모가 큰 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다카 주식거래소 (Dhaka Stock Exchange) 등에 상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주는 최소 7명으로 상한은 없으며, 이사는 최소 3명이 돼야 한다. 공개주식회사는 주식을 일반에 공개함에 따라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많은 규제 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중소형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선호되지 않는다.
- ☞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 주식을 공모 하는 것이 금지되며, 주식을 이전할 권리가 제한되는 회사로 방글라데시 내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주의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로 제한되는데 여기에 회사의 종업원들은 배제된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들은 대부분 비공개주식회사 형태로 들어와 있다.

### □ 투자형태별 구분

#### ○ 현지법인(Incorporation)

- 상기 투자법규 상의 주식회사(공개·비공개), 보증유한회사 등이 현지법인이다.

○ 지사(Branch Office)

- 지사는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으며, 본사의 영업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중앙은행에 자금 입출 금 내역을 보고하며 전체 지출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해 세금을 납부한다. 일견 현지 법인에 비해 지사가 설립절차상 용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전문가들은 지사의 경우 중앙은행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등 오히려 법인설립에 비해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행위를 하되 매출이 전액 한국에서 잡히는 상사 거래 위주인 경우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지 컨설턴트는 지사는 방글라데시 법체계상 예외적인 경우로 오히려 많은 통제를 받으므로 법인 설립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 지사 설립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 지사의 모든 비용은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야 하며 현지에서 수취한 대금(ex. 공사 기성대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또 어떠한 형태로든 본국으로의 송금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사항은 투자청(BOI)이 발급하는 지사 설립 허가 서류에 명시돼 있는 것이므로 공식적 절차를 통해 면제(waiver)하지 않는 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한국으로의 송금제한 관련 규정은 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Liaison/Representative Office)

- 연락사무소나 대표사무소 역시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으며, 활동의 범위는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된다. 즉,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본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의 매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락사무소는 현지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입금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지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다. 회사등록 및 설립 절차

□ 현지법인(생산법인포함, Incorporation) 설립 절차

- 설립예정 법인명에 대한 회사명중복여부(Name Clearance)를 방글라데시 회사등기소(RJSC:Registrar of joint companies and firms)를 통해 확인한다.
- 방글라데시 내 은행을 통해 비영리적(Nonoperative) 계좌(임시 비거주자용 현지화 계좌)를 개설하여 초기/청약 자본금(initial/subscribed share capital)을 송금 후 방글라데시 현지화로 환전 현금화해야 한다. (환전증서 수령)
  - 회사 설립 이후 이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됨
- 회사설립 후 회사등록을 위해선 회사등기소(RJSC)를 통해 아래의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현지은행에서 영구계좌(Permanent Account)를 개설한다.
  - 정관
  - 합작법인의 경우 합작 투자계약서

- 작성 완료된 지정서식
  - 회사명 중복여부 확인서(Name Clearance)
  - 초기/청약자본금 환전증서(Encashment Certificate of Remittance)
  - 관련수수료 및 인지세
  - 법인등기부등본
- 회사등기소(RJSC)를 통해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거래은행을 통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외환투자본부에 신고한다.

#### □ 지사 및 연락사무소(Branch office & Liaison office) 설립절차

- 지사는 중앙은행에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고 전체 지출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형식으로, 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오히려 법인에 비해 까다로운 점이 많아 현지 전문가들은 법인 설립을 권하기도 한다.
- 방글라데시 투자진흥청(BIDA)에 지사/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 지정된 신청서제출
  - 한국본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한국본사의 이사 및 발기인들(Directors/Promoters)의 이름과 국적
  - 회계감사 완료된 한국본사의 최근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방글라데시 현지에 개설할 지사/사무소에 대한 회사 이사회 의사록
  - 외국인 및 현지인의 회사 조직도&업무내용 제출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혹은 Sonali은행 지점에 관련수수료 예탁 영수증
  - 첫3년 간 운영 후 2년 단위로 갱신가능
- 관련서류는 방글라데시의 재외공관 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해당국가의 재외공관/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자진흥청의 허가서 발행 후 2개월 내 본사로부터 송금 수취한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설립비용 및 사무소 운영비용을 지사/연락사무소 은행계좌에 예치한다.
- 투자진흥청의 허가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 거래가능 은행에 신고한다.

#### □ 설립비용 관련 주의 사항

- 법인설립 시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국인이 근무하는 경우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만 달러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경우 한국인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운영비용으로 5만 달러를 자사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허가 취득 후 2개월 이내).

- 두 경우 모두 현지 정부에 납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송금한 후 현지 법인, 지사, 사무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결국 paper company 설립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설립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은 현지 기관에 내는 각종 수수료뿐이나 실질적으로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공식비용(언더테이블머니)가 상당액 소요된다.
-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공식 및 비공식 비용, 컨설턴트 수수료를 합해 통상 3천~6천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본금 규모, 업태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현지 법인으로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고, 원부 자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받는 경우 (bond license 취득) 가장 비용이 높아진다.

## 2. 투자환경

### 가. 투자유치제도

- 주무부처 : 방글라데시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http://boi.gov.bd/>)
- 외국인 투자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Protection Act, 1980)
  - 방글라데시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투자는 수출용 의류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 내수 시장이 협소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대부분의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세제 및 금융)가 수출산업 위주이기 때문이다.
  - 특히 이들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인센티브가 실제로 전무하다는 비판도 있다.

### 나. 우대 및 인센티브

- 우대사항
  - 법적으로 외국인투자 보장 및 이익, 자본, 배당금의 반출 및 철수 보장
  - 100%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과 현지인의 합작투자 가능
  - 수출 가공공단(EPZ)조성을 통해 수출산업용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 이중과세방지협정(한국 포함) 체결
  -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발행, 배당금의 해외송금 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불필요

-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의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투자 가능
- 신규 투자 및 정상적인 송금경로를 거쳐 반입되는 자금에 대해소득세 면제
- 기술 이전료를 지급할 경우 투자청이 정한 규정 내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불필요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사전승인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외국 업체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를 통해 증권취득으로 생긴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은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해외로 반출 가능

#### □ 주요 인센티브

- 세금 면제(Tax Holiday) :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 업종 및 투자지역에 따라 5~10년의 법인소득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제공된다. 2019.6월부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
- 수혜 가능 업종 : Tax Holiday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5~10년, 인프라 관련 업종의 경우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혜 요건
  - Head Office가 방글라데시에 소재해야 한다.
  - 반드시 신규 기업이어야 하며 기존 기업의 분사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비 이전에 의한 신규 기업 설립도 불허하다.
  - 자본금이 2백만 타카 이상이어야 한다.
  - 면세되는 소득 중 30%는 재투자해야 하며, 10%는 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지 6개월 이내에 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면세 적용기간은 그 개시일로부터 계산한다.
- 인센티브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국세청(NBR)에 제출하면 된다. NBR은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면세 허가(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등록증)
  -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정관)
  - 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상업적 생산 개시증명)
  - Certified copy of Balance sheet and Profit & Loss Account(재무제표 등)
  - Certified copy of blue print of building(공장 청사진)
  - Certificate that undertaking has not applied or shall not apply for, 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ed under Para 7 or 7A of Third schedule of ITO 1984.
- \* 가속상각 등 다른 세제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 □ 참고사항

- 아울러 한국기업들이 사업 운영지로 선호하는 주요 대도시는 혜택에서 제외된 점, 섬유봉제업이 제외된 점 등으로 인해 활용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 상기의 Tax Holiday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은 다카, 나라얀간지, 치타공, 쿨나 등의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기계 및 플랜트의 실제 비용에 대해 당해년도 50%, 차년도 30%, 3년째에는 20%의 가속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 자본재(기계장비) 수입 관세 등 면제
  - 일반적으로 EPZ 안에서는 기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EPZ 밖에서는 100% 수출기업에 대해 기계 수입 시 1%의 관세를 부과한다.
- 원자재 수입관세 관련
  - 생산공장이 EPZ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없이 100%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원료와 중간재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세창고허가(Bonded Warehouse License)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EPZ 내 기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EPZ 외 기업이 신규로 보세창고 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의류 제조업의 경우 보세창고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의류생산자협회(BGMEA 또는BKMEA)의 회원으로 가입돼야 하지만,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가 회원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세 환급(Bond License)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보세면허(bond license)가 없는 수출업체의 경우 관세 환급(drawback)을 받을 수 있다. 수출업체는 국세청(NBR) 산하의 DEDO(Duty Exemption and Drawback Office)라는 기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아래의 5개 업종은 방글라데시 정부만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이다.
  - ① 무기, 군수 및 기타 군사장비, ② 원자력 생산, ③ 보호지역 내에서의 조림 및 벌목, ④ 증권발행(지폐) 및 통화주조, ⑤ 항공운송 및 철도운송 등 5개 업종

## 다. 외국인투자 허가 절차

절차	세부내역
1. 투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제한 및 장려업종 고려</li> <li>- 타당성검토 및 세부진출계획</li> <li>- 합작계약 체결(합작 진출시)</li> </ul>
2. 허가신청 및 검토 (BOI 또는 EP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작계약서 5부(합작 진출시)</li> <li>• 외자도입 계약서 5부(외자사용시)</li> <li>• 거래은행이 작성한 재정증명서 5부</li> <li>• 현지 은행자금 제공계획서 5부 (현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li> </ul> </li> </ul>
3. 승인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통보</li> </ul>
4. 현지법인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허가서를 근거로 투자자가 직접 등록</li> </ul>

\* 자료 : 방글라데시 투자청(BOI) 영문자료 번역

## 라.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방글라데시는 그동안 국가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섬유·봉제업이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모든 산업 역량을 투입했으며 이들 섬유·봉제업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8개의 수출 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에 입주해 각종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을 받아 왔다.
- 이러한 수출 가공공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가 산업의 기여도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의 EPZ과 이번 EZ의 공통점으로는 Tax Holiday, 원자재 수입 면세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점이며,
- 차이점은 1) EPZ는 수출용 제품만 생산이 가능한데 반해, EZ는 수출용 및 내수용 제품도 생산 가능하다는 점(다만 내수 판매 시 관련 세금 징구), 2) EPZ는 한국기업 영원무역의 KPEZ를 제외하고 8개 공단 모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EZ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가능하다는 점이다/
- 2010년 경제특구법 발효 이후 주무 관청인 BEZA(Bangladesh Economic Zone Authority)까지 신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특구 개발은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로, 에너지 등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주변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았고, 해당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환경오염 등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일부 경제특구에는 이미 외국계 회사들이 현지 진출을 위한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Abdul Monem 경제특구의 경우 일본의 혼다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마. 투자 제약

방글라데시는 투자진출과 관련한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개발국이란 한계에서 기인하는 걸림돌도 많은 실정이다. 현지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 정부 당국의 중첩되고 느린 의사결정 등 제도적·관습적 취약성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투자신청과 프로젝트 착수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다. 투자가 최종승인을 받고 기업이 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친 뒤에도 관료계급 내 복수의 의사결정자들이 용수, 전력, 전화선과 같은 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한 서류를 제공 하고 서명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 소요된다.
- 관료조직 전반에 부패가 존재한다. 최상층부의 경우 프로젝트 입찰과 승인에 대한 상당액의 뒷돈 수수가 있으며, 하급직에서는 신속한 서류처리와 신청서 승인에 대해 급행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조세담당관을 만날 때 선물을 주거나, 면허, 통관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에 비공식적으로 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한편 이러한 행태는 민간기업에도 널리 퍼져, 어떤 제품을 납품할 경우 관련 기술자 등에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된다.

### ■ 전력 부족

- 정부에서 최대 발전연료인 천연가스와 석탄자원 개발에 실패하고 효율적인 가스관 네트워크 구축을 못한 결과로 지난 수년간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전력 위기를 겪었다.
- 현 정부가 전력난에 대한 빠른 해결책으로 연료(중유, 디젤)을 사용하는 렌탈 발전소 (rental power plant)를 집중 설치했는데, 연료 수입 급증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국제유가 상승과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등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가 내 발전소의 87%가 천연가스를 사용해 발전 중인데 가스 부족에 따라 대부분이 발전능력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 만성적인 부족은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을 높이고,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력 위기에 따라 국가의 연간 제조업 생산 손실액이 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GDP의 2%에 해당한다.
- 진출 기업들은 자체 발전기를 설치,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전기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전은 특히 의류부문에서 문제시 되는데 이는 생산성을 낮추고,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며, 보다 높은 비용의 발전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 업체는 영업 개시 후에도 최소 3개월간은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데 이는 창업비용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 ■ 조세행정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의 인센티브는 충분하지만, 기업들은 현지의 조세정책과 조세행정 모두 복잡하며, 많은 경우 제멋대로 운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 지난 수년 간 방글라데시의 세금 법규는 다양한 이익 집단에 대해 조세 감면 또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 수정을 거듭한 결과, 현재는 너무 많은 세율과 예외사항이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이유로 외국 투자자들은 조세체계가 복잡하다고 인식한다. 실제로 세율을 둘러싼 혼란이 잦으며, 조세 담당관이 세율 적용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 ■ 낮은 생산성 및 노사관계

- 낮은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교육수준 및 숙련도와 연관돼있다. 노동력은 풍부하다. 현재 노동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노동자 대다수는 기술이나 숙련도가 부족하며, 해외 및 현지 제조업체들이 고품질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훈련과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 기술적 숙련도를 갖춘 노동자, 특히 중간관리급 프로페셔널이 부족하며, 국가 직업 훈련 시스템이 외국 제조업체의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 토지 취득의 어려움

- 외국 투자자는 방글라데시에서 토지 소유가 허용되나, 토지 취득가능성은 크게 제한이 있다. 대부분 토지가 정부나 공기업 소유이며 혹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대규모 유휴 구획이 별로 없다.
- 방글라데시 내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제대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토지취득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최하위에 랭크 돼있다. 부동산 등록에 무려 250여일이 소요될 정도이다.

- 수출가공공단(EPZ)의 경우 물류 등 여건이 좋은 대도시 인근 EPZ는 이미 투자자 추가 모집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도시 공단 주변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부족하다. 정부는 민간자금을 투입한 SEZ(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진척이 미미하다.

#### ■ 분쟁해결의 어려움(법체계의 전반적인 낙후)

- 외국 투자자들은 방글라데시의 취약한 법률제도를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투명하고도 신속한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해결하는 절차가 확립돼 있지 않다.

#### ■ 자금 조달 여건

-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잠재 투자자에게 융자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내 금융기관 사이에 더 많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글로벌기업은 자체 능력이 있지만, 여타 외국 기업의 경우 장기 자금의 부재로 인해 현지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 관료주의 또한 걸림돌인데 상환기간1년 이상의 해외 차입을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통상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 ■ 기타

- 방글라데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방글라데시에서 발행된 신용장(L/C)는 다른 나라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도 있다.

### 3. 조세 제도

#### 가. 조세 제도 개요

- 방글라데시의 조세의 구조는 소득세(법인 및 개인소득세), 관세, 부가세 및 기타 제세(재산세, 선물세, 인지세, 해외여행세, 항공권세 등)로 크게 구분된다.
-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National Board of Revenue)는 조세를 총괄하는 행정당국으로서 조세국(소득세 및 제세), 관세국(관세), 부가세국(부가세) 등으로 편제된다.
- 방글라데시의 회계연도 기준은 당해년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로, 세금 부과는 직전 회계연도의 소득 관련 자료를 기초로 산정된다.

## 나. 조세 구분

### □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2015년부터 비상장기업(Non-Publicly Traded Company)의 법인소득세율이 37.5%에서 32.5%로 인하돼 한국 투자기업들은 수혜를 누리게 됐다.(2020년 32.5%로 인하)
- 2018년 7월부터 의류제조업(RMG)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5%로 부과하고 있다. 섬유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15년 이전까지 10%였으나 2015년부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35%로 인상되었다. 이 세율이 2016년 7월부터 다시 20%로 인하되었고 2017년 12%를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는 15%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 □ 사전소득세(Advance Income Tax)

- 방글라데시에 있는 독특한 세제로, 한국의 경우 연말정산 시 법인소득세가 산정되지만, 방글라데시는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사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조세행정 체계 미흡으로 인해 사후 소득세 징수 시 광범위한 탈루가 일어나고 있어, 다수 거래에 있어 구매자(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사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제품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사전소득세(AIT, Advanced Income Tax)를 부과하는 것, 정부 프로젝트 발주 시 정부가 사전소득세(AIT)를 원천 징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 건물 임차 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사전소득세(AIT)를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방글라데시 내에서 발생되거나 귀속되는 모든 개인소득이 그 대상중 하나이다.
  - 개인소득 : 임금, 채권 이자율, 주택 소득, 농업 소득, 직업 소득, 자본 소득 등
-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기업(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한국인 파견 직원의 소득세를 간혹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 소득세 산정 시 비용으로 급여를 산입한 이상 반드시 국세청에서 미납사례를 발견해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기업주들은 종업원의 소득을 원천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소득 구간별 개인소득세 세율
  - 0~220,000 Taka : 0 %
  - 220,001~300,000 Taka : 10%

- 300,001~400,000T aka : 15%
- 400,001~500,000 Taka : 20%
- 500,001~3,000,000 Taka : 25%
- 3,000,001 Taka 이상 : 30%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Ordinance)은 1991년 7월부로 시행 중이며, IMF의 권고로 2012년 3월 내각 회의에서 新 부가세 법안을 승인했다.
- 新 부가세 법안은 복잡한 세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대해 15%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인데 세금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발효 시기는 계속 연기되었다. 매년 6월 발표되는 차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고 있지만 여론의 반대가 심해 2020년 7월에도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연기되었다.

## 4. 금융환경

### 가. 금융제도

- 방글라데시 금융시스템은 크게 공식부문(Formal Sector), 준공식부문(Semi-Formal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으로 나뉘지는데 구분 기준은 규제의 정도이다.
- 공식부문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NBFIs), 보험회사, 증권거래소, 미소금융기관(MFIs) 등으로 구성되며, 준공식부문은 중앙은행의 관할을 받지 않는 특수 금융기관, 비공식부문은 규제를 받지 않는 완전 사설 금융 기관을 의미한다.

### 나. 주요 금융기관

- 방글라데시는 중앙은행이 국내외 여러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취합해 공지한다. 총 5등급으로 구분하나, 1등급으로 평가된 은행이 너무 많아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ECAIs Credit Rating of Scheduled Banks for 2020-21  
(As of Financial Statements 2019)

Sl. No.	Name	Name of ECAI	Long Term Rating	Equivalent BB Rating	Short Term Rating	Date of Rating
<b>SCBs (04)</b>						
1	Sonali Bank Limited	CRISL	A(AAA)	2	ST-2(ST-1)	Nov 26, 2020
2	Janata Bank Limited	CRISL	A(AAA)	2	ST-2(ST-1)	July 18, 2020
3	Agrani Bank Limited	Alpha	A+(AAA)	2	ST-2(ST-1)	July 26, 2020
4	Rupali Bank Limited	ECRL	A-(AAA)	2	ST-3(ST-1)	Sept 21, 2020
<b>PCBs (23)</b>						
5	Mercantile Bank Limited	ECRL	AA	1	ST-2	May 22, 2020
6	AB Bank Limited	Argus	A+	2	ST-2	Dec 19, 2019
7	One Bank Limited	ECRL	AA	1	ST-2	Mar 10, 2020
8	Eastern Bank Ltd	CRISL	AA+	1	ST-2	June 22, 2020
9	Standard Bank Limited	CRISL	AA	1	ST-2	June 28, 2020
10	Uttara Bank Limited	ECRL	AA	1	ST-2	July 01, 2020
11	Dutch-Bangla Bank Limited	CRISL	AA+	1	ST-1	July 16, 2020
12	Pubali Bank Limited	NCRL	AA+	1	ST-1	June 30, 2020
13	Dhaka Bank Limited	ECRL	AA	1	ST-2	April 8, 2020
14	Jamuna Bank Limited	CRAB	AA2	1	ST-2	June 30, 2020
15	The City Bank Limited	CRAB	AA2	1	ST-2	May 29, 2020
16	United Commercial Bank Ltd	ECRL	AA	1	ST-2	May 07, 2020
17	Bank Asia Limited	CRAB	AA2	1	ST-2	June 30, 2020
18	IFIC Bank Limited	ECRL	AA	1	ST-2	July 01, 2020
19	BRAC Bank Limited	CRAB	AA1	1	ST-1	June 28, 2020
20	Premier Bank Limited	Argus	AA+	1	ST-1	May 30, 2020
21	Prime Bank Limited	ECRL	AA	1	ST-2	July 01, 2020
22	Mutual Trust Bank Ltd.	CRISL	AA	1	ST-2	July 15, 2020
23	NCC Bank Ltd	ECRL	AA	1	ST-1	June 21, 2020
24	National Bank Limited	ECRL	AA	1	ST-2	May 26, 2020
25	Southeast Bank Limited	CRISL	AA	1	ST-2	July 29, 2020
26	Bangladesh Commerce Bank Ltd.	Alpha	BBB-	3	ST-4	July 14, 2020
27	Trust Bank Limited	CRAB	AA2	1	ST-2	Sept 10, 2020
<b>FBs (09)</b>						
28	Standard Chartered Bank	CRISL	AAA	1	ST-1	April 01, 2020
29	Bank Alfalah Limited	Alpha	AA	1	ST-2	June 05, 2020
30	Commercial Bank of Ceylon PLC	CRISL	AAA	1	ST-1	June 23, 2020
31	National Bank of Pakistan	CRAB	BBB2	3	ST-3	Oct 22, 2020
32	HSBC	CRAB	AAA	1	ST-1	Feb 06, 2020
33	Woori Bank	S&P, Moody, Fitch	A.A1,A-	2	A-1, P1, F1	April 27, 2020
34	Citi Bank, N.A.	S&P, Moody, Fitch	A+,Aa3,A+	2	A1, P1, F1	May 08, 2020
35	Habib Bank Limited	CRISL	A+	2	ST-2	June 25, 2020
36	State Bank of India	Alpha	AAA	1	ST-1	July 29, 2020
<b>Islamic Banks (07)</b>						
37	Social Islami Bank Limited	ECRL	AA	1	ST-2	March 08, 2020
38	Islami Bank Bangladesh Limited	Alpha	AAA	1	ST-1	July 15, 2020
39	AL-Arafah Islami Bank Limited	CRISL	AA	1	ST-2	June 22, 2020
40	ICB Islami Bank Limited	Unrated				
41	Shahjalal Islami Bank Limited	CRAB	AA2	1	ST-2	June 15, 2020
42	First Security Islami Bank Ltd.	ECRL	A+	2	ST-2	May 15, 2020
43	EXIM Bank Ltd	CRISL	AA-	1	ST-2	June 25, 2020
<b>SBs</b>						
44	BDBL	ECRL	A-(AAA)	2	ST-3(ST-1)	July 30, 2020
45	BASIC Bank Limited	NCRL	B+(A+)	5	ST-5(ST-2)	Sept 09, 2020
46	Bangladesh Krishi Bank	Unrated				
47	Rajshahi Krishi Unnayan Bank	NCRL	BBB(A)	3(2)	ST-3(ST-2)	June 25, 2020
<b>New Banks</b>						
48	NRB Bank	ECRL	A-	2	ST-2	July 01, 2020
49	NRB Commercial Bank Limited	CRISL	A	2	ST-2	Aug 19, 2020
50	NRB Global Bank Ltd	Alpha	A+	2	ST-2	July 19, 2020
51	SBAC Bank Ltd	CRAB	A3	2	ST-2	Sept 27, 2020
52	Union Bank Limit (Islamic)	Alpha	A+	2	ST-2	June 19, 2019
53	Midland Bank Limited	CRAB	A2	2	ST-2	June 30, 2020
54	Modhumoti Bank Limited	CRAB	A2	2	ST-2	July 01, 2020
55	Meghna Bank Limited	Alpha	A+	2	ST-2	June 26, 2020
56	Padma Bank Limited	Unrated				
57	Shimanto Bank Ltd.	CRISL	A	2	ST-2	02 Dec, 2020

Note: 1) Rating notation in parentheses shows 'with government support' rating for the SCBs.  
2) Standalone rating (without government support) has been considered in case of SCBs  
3) Validity of a Rating is one year starts from the last rating date.



## 다. 현지금융조달

-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금융기관 이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현지자금과 해외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고 외환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달러차입은 무척 어렵다.
- 중앙은행은 외국투자기업의 현지화 운용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총부채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외화 차입을 위해서는 외화 차입 신청서를 여타 서류와 함께 BOI에 제출해야 하며, BOI는 우선순위 등을 정해 중앙은행 총재가 관장하는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다.
- BOI는 주로 중기 및 장기 대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파악된다. 승인된 외화 차입의 원리금 상환은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 외국 기업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능한 용자는 최대 연리 15%에 5년 조건이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현지화 대출은 일반적인 은행-고객 관계에 근거하여 이뤄진다.
- 한편, 다카에는 우리은행 지점이 존재하는데 현지화 대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출 가공 공단(EPZ) 입점기업에 대해 달러대출도 하고 있다.

## 라. 외환제도

- 방글라데시에서는 중앙은행인 Bangladesh Bank(이하 BB)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 가치를 유지하며 외환거래를 관리한다.
- 방글라데시 타카화(taka)는 무역, 투자 및 투자관련 거래를 비롯한 당좌거래(current account transactions)를 위한 태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기본적으로 외화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AD: Authorized Dealer bank)만이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방글라데시는 2003년 5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간 외환거래 시 환율을 통제하는 등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 완전한 변동환율제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 현지화(타카, Taka)는 수출 부진으로 2012년 1 달러 = 81.9 타카 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수출 회복, 투자 위축에 따른 수입 둔화, 해외 근로자 송금 확대 등에 힘입어 2021년 02월 기준 1 달러 = 84.8 타카 까지 상승했다.

## 마. 외환 규제

- 외국인은 제한 없이 현금을 포함한 외화를 반입할 수 있으나, 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한 외화는 반출도 가능하나, 반입 시 작성한 신고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외화계좌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본원칙은 수출가공공단(EPZ) 안에 입주한 기업(특히, Type A)은 현지 은행에 외화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를 보유할 수 있으나, EPZ 밖에 있는 기업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없으면 외화계좌를 가질 수 없다.
- EPZ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한 산업단지로서, 입주기업은 100% 외자 기업인 Type A, 국내외 합작기업(JV)인 Type B, 100% 방글라데시 기업인 Type C로 분류된다.
- Type A 외자 기업은 외화계좌 보유에 아무 제한이 없으나, Type B와 Type C에 해당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외화계좌 보유가 허용되지 않고 중앙은행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편, EPZ 밖에 있는 기업들도 원칙상 외화계좌를 가질 수 없으나, 수출기업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으면 외화계좌 개설 가능하다.(수입만 하는 업체는 외화계좌 개설 불가)
- 외국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이익금, 배당금, 자본이득 등의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투자기업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환은행(AD)을 통해 세후 이익(post-tax profits)을 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원천과세 이후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송금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다. 단, 투자사업의 청산에 따른 수입금을 송금할 때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방글라데시에서는 외화가 부족함에 따라 외화의 해외 반출은 상당히 통제되는데, 수입대금은 신용장(L/C) 결제가 원칙이며 송금(T/T) 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수출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일부를 외화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 수출업체는 일반적으로 수출대금(FOB 가액)의 50%를 달러화 등 외화로 보유할 수 있는데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수출품의 경우에는 FOB가액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 수출업체는 이를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치해 두고 각종 사업비용(해외출장, 수출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원료·기계·부품 수입 등)에 충당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없이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쓸 수도 있다.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1980**  
( ACT NO. XI OF 1980 )

[1st April, 1980]

An Act to provid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private investment in Bangladesh.

WHEREAS it is expedient to provid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private investment in Bangladesh;

It is hereby enacted as follows:

##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alled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1980.

## **2. Definitions**

(1) In this Act, unless there is anything repugnant in the subject or context,–

- (a) “foreign capital” means capital invested in Bangladesh in any industrial undertaking by a citizen of any foreign country or by a company incorporated outside Bangladesh, in the form of foreign exchange, imported machinery and equipment, or in such other form as the Government may approve for the purpose of such investment;
- (b) “foreign private investment” means investment of foreign capital by a person who is not a citizen of Bangladesh or by a company incorporated outside Bangladesh, but does not include investment by a foreign Government or an agency of foreign Government;
- (c) “industrial undertaking” means an industry, establishment or other undertaking engaged in the production or processing of any goods, or in the development and extraction of such mineral resources or products, or in the providing of such services, as may be specified in this behalf by the Government.

- (2) Words and expressions used but not defined in this Act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Companies Act, 1913 (VII of 1913).

### **3. Foreign private investment**

- (1) The Government may, for the promotion of foreign private investment, sanction establishment with foreign capital of any industrial undertaking—
- (a) which does not exist in Bangladesh and the establishment whereof, in the opinion of the Government, is desirable; or
  - (b) which is not being carried on in Bangladesh on a scale adequa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the country; or
  - (c) which is likely to contribute to—
    - (i) the development of capital, technical and managerial resources of Bangladesh; or
    - (ii) the discovery, mobilization or better utiliz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r
    - (iii) the strengthening of the balance of payment of Bangladesh; or
    - (iv)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n Bangladesh; or
    - (v)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any other manner.
- (2) Sanction of the establishment with foreign capital of an industrial undertaking under sub-section (1) may be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Government may deem fit to impose.

### **4. Protection and equitable treatment**

The Government shall acco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foreign private investment which shall enjo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Bangladesh.

### **5. Terms of sanction, etc.**

The terms of sanction, permission or licence granted by Government to an industrial undertaking having foreign private investment shall not be unilaterally changed so as to adversely alter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establishment of such undertaking was sanctioned; nor shall foreign private investment be accorded a less favourable treatment than what is accorded to similar private investment by the citizens of Bangladesh in the application of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 **6. Indemnification, etc.**

In the event of losses of foreign investment owing to civil commotion, insurrection, or riot, foreign private investment shall be accorded the same treatment with regard to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restitution, or other settlement as is accorded to investments by the citizens of Bangladesh.

## **7. Expropriation and nationalisation**

- (1) Foreign private investment shall not be expropriated or nationalized or be subject to any measures having effect of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except for a public purpose against adequate compensation which shall be paid expeditiously and be freely transferable.
- (2)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1) shall be an amount equivalent to the market value of investment expropriated or nationalized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 **8. Repatriation of investment**

- (1) In respect of foreign private investment, the transfer of capital and the returns from it and, in the event of liquidation of industrial undertaking having such investment, of the proceeds from such liquidation is guaranteed.
- (2) The guarantee under sub-section (1) shall be subject to the right which, in circumstances of exceptional finan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the Government may exercis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such circumstances.

## **9. Removal of difficulty**

If any difficulty arises in giving effect to any provision of this Act, the Government may make such order,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s may appear to it to b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removing the difficulty.